

국내 최대 규모 인라인 축제 전주서 열린다

‘제20회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 11월 1~2일 3000여명 참가 개최

국내 유일의 도심형 인라인 축제인 ‘제20회 2025 전주 월드인라인마라톤 대회’가 11월 1일과 2일 이틀간 옛 전주종합경기장과 송천동 인라인경기장 등 전주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29일 전주시와 전주시물러스포츠연맹 등에 따르면 대한물러스포츠연맹이 주최하고, 전주시물러스포츠연맹과 전북특별자치도물러스포츠연맹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정상급 인라인 선수들과 국내 엘리트 선수, 생활체육 동호인 등 3000여 명이 참가해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인라인 대회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대회에는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콜롬비아, 이탈리아, 중국, 대만 등 14개국 100여 명의 해외 선수단이 출전하며, 지난 대회의 42km 우승자인 Matthias Laurent David Rocher(프랑스)와 Yi Hsuan Liu(대만) 선수가 1000만 원의 우승 상금을 거머쥐기 위해 최근 전국체전을 통해 물오른 기량을 뽐낸 대한민국 국가대표급 선수들과 치열한 경쟁에 나선다.

대회는 △42km 오픈부 △21km 청년·장년 △실버부 △21km 단체부 △6km 초등부 경쟁 등 총 11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부문별 경기에서 세계 랭커들과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기량을 겨룬다.

이번 대회의 메인 행사인 인라인 마라톤 경기가 펼쳐지는 오는 11월 2일

에는 오전 7시 50분부터 10시까지 옛 전주종합경기장~롯데백화점~덕진경찰서~전주월드컵경기장 구간의 온고을로 도로가 전면 통제된다.

시는 덕진경찰서, 완산경찰서는 대회 진행 및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회 구간별 우회도로 및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 경찰과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을 배치해 안전한 통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회로 인해 일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노선의 임시 변경 및 지연 운행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교통정보를 확인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는 것이 좋다.

/권희성 기자



‘제20회 2025 전주 월드인라인마라톤 대회’ 포스터

다둥이카드 할인가게 40개소 등록

전주시, ‘우리아이 함께키움’ 다둥이카드 협약 체결

전주시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등 출산과 다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전주시는 29일 전주소통협력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전주지역 다자녀가정 우대증(다둥이카드) 소지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우리아이 함께키움’ 다둥이카드 할인가게 40개소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과 9월 두 달간 ‘우리아이 함께 키움 다둥이카드 할인가게’를 공개 모집했다.

그 결과 △음식점 16곳 △교육 1곳 △생활편의 11곳 △문화·체육 시설 6곳 등 총 40개소가 신청해



‘다둥이카드 할인가게’로 등록됐다.

이로써 다둥이카드 할인가게는 경기전, 전주자연생태관, 동물원 무료입장 등 공공분야 21곳과 민간 협약가게 73곳을 포함한 9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다둥이카드 할인가게의 상호 명과 세부 할인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과 새소식, 분야별정보(인구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AI 전환 통한 ‘전주시 신성장산업 견인’ 모색

전주AX미래전략 포럼·전주시 AI 추진위원회 출범식 공동 개최

전주시가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정책 발굴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29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 이하 진흥원) 대강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지역 기업인, 대학·연구기관 관계자,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AI 대전환, 전주AX미래전략 포럼’과 ‘전주시 인공지능(AI)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AI 추진 방향과 AX(인공지능 전환) 기술 동향, 퍼지컬AI 산업의 전망을 함께 공유하고, AI를 통한 전주시 신성장산업 견인을 위한 산·학·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는 29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 AI 대전환, 전주AX미래전략 포럼’과 ‘전주시 인공지능(AI)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전주시 인공지능 추진위원회는 인공지능과 로봇, 모빌리티, 바이오,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전주시 AI 정책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장은 전주시장이 맡게 되며, 위원 임기는 2

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이 자리에서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AI 전환(AX)을 통한 전주시 신성장 산업 견인을 목표로 전주시의 AI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추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책 심의·자문 체계 구축을 공약화했으며 총 전주

AX미래전략 포럼도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인 ‘AI 추진방향 및 AX 기술동향’에서는 △오철원 전주시 신성장산업과과의 ‘국가 AI 전략 및 전주시 AI산업 추진 방향’ △육상훈 네이버 부장의 ‘AX 혁신 기술과 IT기업 운영전략’ △임명수 관테크부대에 대표의 ‘AI가 바꾸는 금융의 미래’ △박상균 클로봇 상무의 ‘지능형 로봇 기술’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인 ‘퍼지컬AI 산업과 전망’에서는 장영재 KAIST 교수와 박승대 퍼지컬AI사업기획단장, 김상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각각 ‘퍼지컬 AI팩토리를 통한 산업 육성’과 ‘전북, 퍼지컬AI로 여는 새로운 혁신’, ‘AI·로봇 융합이 만드는 의료 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인 ‘AI 대전환, 전주 신성장산업 견인을 위한 산·학·연 공동 토론회’에서는 이하늘 소프트스캐어드 대표의 진행으로 발표자 7명이 참여해 전주시 AI 정책 추진 방향과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내달 14일까지 산업단지 입주기업 실태조사

전주시가 맞춤형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11월 14일까지 약 2주간 전주제1·2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분기별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공장 가동률과 휴·폐업 여부, 고용 인원, 매출 현황 등 기업의 경영 실태 전반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산업단지의 변화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설계 및 기업 지원 기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기존 공약원 단독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밀착형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산단지’를 운영키로 했다.

산단지기는 전주효자시니어클럽을 통해 선발된 노인 20명으로 구성되며, 산단을 구역별로 나누어 분기별 2주간 실태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어린이·청소년 교통정책 토론회 개최

전주시의회는 29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최지은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과 장재희 의원(비례대표) 주최로 ‘검고 타며 함께 가는 전주시, 어린이·청소년 교통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단국대학교 장재민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겸임교수가 ‘위金斯쿨버스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주제로 교통안전지도사 도입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청소년 1만원 버스 정기권 도입’을 주제로 타지역 무상교통 사례 및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례와 그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신유정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을 좌장으로, 전주안원초등학교 6학년 김지후 학생과 전일중학교 2학년 박지수 학생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직접 체험한 통학 환경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합리적인 교통요금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최지은 의원과 최서연 의원(진북동, 인후1·2동, 금암동),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김의숙 센터장, 덕진초등학교 이정희 운영위원장 등도 교통안전교육 강화, 보행환경 개선, 청소년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기술동향 세미나 개최

수소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전주에서 대한민국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전주시와 사단법인 탄소수소산업연구조합은 29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이상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상용화수소팀장, 송정민 비나에프씨엠(주) 상무이사, 전상진 덕산에테르씨티(주) 상무이사 등 유관기관



및 지역 수소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기술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송승룡 탄소중립수소

경제운동본부 이사장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수소산업 현황 및 수소산업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수소산업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소 기술 및 산업 동향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기업의 발표도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송정민 비나에프씨엠(주) 상무이사는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 스택 개발’을 주제로 수소연료전지의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했으며, 이어 운영형 일진하이슬루스(주) 고문과 하

성규 쓰리피닷컴 대표가 각각 ‘수소 저장 용기’와 ‘수소 사회를 대비한 탄소복합재료 사업의 비전과 방향’을 주제로 수소탱크와 탄소복합재료에 대한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이어 장애숙 전주시 주력산업과장은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전주시 수소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수소산업 육성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지역 수소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